

# 소멸·기억·관계 ‘예술로 회복’…무대로 삶 어루만지다

‘예술과 회복력’이라는 주제로, 소멸·기억·애도·관계를 다층적으로 탐구하는 신작 공연이 펼쳐진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전당장 김상숙)은 오는 12월과 13일 예술극장에서 ‘2025 ACC 공연 레지던시 결과 발표회’를 갖는다.

이번에 선보이는 작품들은 올해 공모를 통해 선정된 공연 레지던시 입주 작가 4팀이 9개월간 연구·개발한 결과물이다.

먼저 오는 12일 연출가이자 극작가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김연민 작가의 ‘누구의 마음도 아니게 될 때’ 낭독극이 결과발표회의 서막을 연다.

김 작가는 공간과 기억을 중심으로 개인과 공동체의 역사를 탐구하는 창작자다. 이번 공연에서는 소멸 위기 지역을 사라지는 공간이 아닌 새로운 의미를 찾는 공간으로 바라보고 과거와 현재, 기억과 현실이 교차하는 무대를 통해 ‘기억은 삶의 형상’이라는 테마로 소멸 속 회복력의 의미를 탐색한다.

작품 속에서는 소멸이라는 현상을 둘러싼 세 개의 엇갈린 시선을 통해 진짜를 기록하려다가 짜를 연출하게 되는 딜레마, 짜리를 판광 상품으로 포장해 소멸을 논하는 사람들의 부조리함, 이 모든 일과 무관하게 일상을 사는 마지막 주민의 삶을 비춘다.

이어 창작부문으로 선정된 이영희 작가의 창작 판소리극 ‘이영 이옹’이 무대를 차운다.

이 작가는 전통 터악을 기반으로 현대적 리듬 감각을 확장해 온 연주자이자 음악감독이다. 작품은 지난해 ‘제15회 젊은 작가상’ 대상을 수상

‘ACC 공연 레지던시 결과 발표회’ 12~13일 예술극장

4팀 낭독극·창작판소리 등…부대행사 라운드테이블도

한 김멜리의 소설 ‘이옹 이옹’을 각색한 작품으로 애도를 끌고나는 감정이 아니라 누군가를 향한 욕망에서 비롯된 계속 반복되는 마음의 움직임으로 바라본다. 작품을 통해 회복은 상처가 사라져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과정이 아닌 상처를 안은 채로도 살아갈 힘을 조금씩 회복하는 일임을 보여준다.

다음날 관객과 만나는 나수민의 신작 ‘설킨’은 회복을 주제로만 삼지 않고 희곡 구조에 접목하는 독특한 작품이다.

나 작가는 일상과 비일상의 경계를 오가는 희곡으로 낯선 연결 속에서 발생하는 오해와 이해의 순간들을 섬세하게 그려내왔다. 훼손된 상태

에서 시지 못했지만 마음으로 연대했던 이들의 기

여과 감정을 복원한다. 참여하지 못한 이들의

좌작감·갈등·대리 만족을 이미지·음직임·대사

로 펼쳐내며, 말하지 못했던 감정을 무대에서

형상화해 그 감정의 무게를 공유한다. 이를 통

해 성 작가는 시위가 단순한 사회적 행동을 넘어

심리적 치유와 감정의 해방, 그리고 개인적 회

복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탐구하는 예술적 회복

력에 관한 연극적 성찰을 제시한다.

이외에도 13일 오전 11시 예술극장 빛 리온지

에서 ‘ACC 개관 10주년 기념 라운드 테이블’이

특별부대행사로 마련된다.

지난 10년 간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창작자들과 실험적이고 새로운 담론의 작품들을 제작해 온 ACC 예술극장이 국내 대표 제작극장 관계자들과 함께 앞으로의 10년의 여정을 준비하는 자리다. 정승재 학예연구관(국립아시아문화전당 공연사업과)이 모더레이터로 참여하고, 정용성 창작개발팀장(국립극단), 신민경 공연기획팀장(LG아트센터), 남윤일 선임 프로듀서(두산아트센터), 이진수 공연기획팀장(정동극장), 안미영 큐드 공연기획팀장(서울문화재단)

으로 풀어낸다.

광주와 서울을 오가며 활발한 활동을 하는 성화숙 연출가는 동시대 사회 현상의 탐구를 기반으로 한 신작 ‘시위 기피의 역사’를 무대에 올린다.

작품은 실제 인터뷰를 바탕으로 시위에 공감하면서도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의 내면을 5·18 민주화운동부터 현대사를 통통하면서 조명한다. 1990년대 광주에서 2024년 서울까지, 현장에 서지 못했지만 마음으로 연대했던 이들의 기여과 감정을 복원한다. 참여하지 못한 이들의 좌작감·갈등·대리 만족을 이미지·음직임·대사로 펼쳐내며, 말하지 못했던 감정을 무대에서

형상화해 그 감정의 무게를 공유한다. 이를 통해 성 작가는 시위가 단순한 사회적 행동을 넘어 심리적 치유와 감정의 해방, 그리고 개인적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탐구하는 예술적 회복력에 관한 연극적 성찰을 제시한다.

이외에도 13일 오전 11시 예술극장 빛 리온지에서 ‘ACC 개관 10주년 기념 라운드 테이블’이 특별부대행사로 마련된다.

지난 10년 간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창작자들과 실험적이고 새로운 담론의 작품들을 제작해 온 ACC 예술극장이 국내 대표 제작극장 관계자들과 함께 앞으로의 10년의 여정을 준비하는 자리다. 정승재 학예연구관(국립아시아문화전당 공연사업과)이 모더레이터로 참여하고, 정용성 창작개발팀장(국립극단), 신민경 공연기획팀장(LG아트센터), 남윤일 선임 프로듀서(두산아트센터), 이진수 공연기획팀장(정동극장), 안미영 큐드 공연기획팀장(서울문화재단)

이 패널로 참여해 국내 공연 예술계의 현재와 제작극장의 역할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김상숙 전당장은 “ACC 예술극장은 창작자들의 창·제작 과정 및 역량에 집중하며 국내 유망 예술가들의 작품 제작에 함께했다”면서 “예술과 회복력이라는 시의적절한 주제를 깊이 있게 탐구한 다양한 작품들을 통해 관객들이 위로와 지유를 얻고 삶의 활력을 되찾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공연 및 부대행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CC 누리집([www.acc.go.kr](http://www.ac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연 관람 연령은 13세 이상, 전석 무료.

정체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경우의 도시’

‘Moonlight Okinawa’

## 1980년 사북항쟁에 ‘오월어머니들’ 연대

오늘 광주독립영화관서 다큐 단체관람…명예회복·국가사과 요구

45년전 어옹노조와 저임금에 항의하며 항쟁을 일으킨 사북항쟁을 다룬 다큐멘터리가 스크린에 오르는 가운데 오월어머니집이 단체관람을 시작으로 향후 연대를 함께할 예정이어서 눈길을 끈다.

(사) 광주영화영상인연대(이상훈 이사장)는 오월어머니집(김형미 관장)과 10일 사북항쟁을 다룬 다큐멘터리 ‘1980사북’(박봉남 감독)을 단체관람하고 사북항쟁에 대한 국가 사과를 요구하는 등 연대에 함께하기로 했다.

‘1980사북’은 1980년 4월 21일부터 24일까지 강원도 정선 사북에서 일어난 광부들의 노동운동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다. 열악한 노동 환경에 분노한 광부들은 시복을 강약하고 바리케이드를 쳤고, 전두환 신군부는 광부들을 진압하기 위해 무장한 계엄군을 투입했다.

사북항쟁은 한 달 후 광주에서 벌어진 5·18민중 항쟁의 전조전과도 같이 긴박한 상황으로 치달았던 사건이지만 아직까지 국가로부터 어떤 사과나 명예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 광부들에게는 고문



과 구타, 광부의 부인들에게는 성고문까지 가했던 국가폭력이었음에도 이들은 폭도로 낙인찍힌 채 숨죽여 살아야 했다.

이번 오월어머니집의 ‘1980사북’ 단체관람은 같은 국가폭력 피해자로서 시복의 상처를 이루만지고, 사북항쟁의 명예회복과 국가의 사과를 받아내기 위한 행동에 연대하는 차원에서 기획됐다.

한편, 10일 오후 4시 광주독립영화관에서 영화 상영 후에는 연출한 박봉남 감독과 오월어머니집에서 어머니들의 미술치유 교실을 진행하는 주홍 작가의 관계과의 대화 시간이 마련된다.

정체경 기자

## 자연과 여성에게 부여된 돌봄의 신화 ‘성찰’

광주여성재단 기획 조성숙 展

내일부터 시민회관…워크숍도

재생 등 재정의 새 패러다임 모색



‘빛의 연대. 우정’

광주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오미란, 이하 재단)은 제8회 허스토리 기획전 공모전 수상작가인 조성숙 개인전 ‘Mother/Earth/Care’를 11일부터 2026년 3월 10일까지 광주시민회관 1층 광주여성전시관 허스토리(Herstory)에서 선보인다.

이번 전시는 환경 파괴와 여성 억압이 동일한 억압구조에서 비롯된다. 보는 에코페미니즘 시각을 토대로 자연과 여성에게 부여된 돌봄의 신화를 비판적으로 성찰한다. 미술평론가 김용근은 기후 위기와 생태 파괴, 돌봄의 소진이 중첩되는 현실 속에서 ‘끝없이 현신하는 여성이라는 상정은 누구를 위로하고, 누구를 침呸시키며, 무엇을 가려왔는가’라고 질문한다. 승고한 사랑의 언어로 포장된 모성이 오랜 시간 돌봄 노동을 여성에게 필연적 역할로 고정해 온 권리 구조의 신성을 지적하며 자연과 여성이 절어진 부담이 동일한 억압 논리에서 비롯됨을 드러낸다.

조성숙 작가는 여성의 신화적 기원과 돌봄의 기억을 다시 읽어내며 여성의 몸과 지구를 생명 창조의 공간으로 바라본다. 상처와 치유, 공존과 회복의 여정을 통해 돌봄을 희생이 아닌 재생과 변화의 힘으로 재정의하고, 생태적 감수성을 기반으로 새운 패러다임을 모색한다.

전시는 기원-상처-재생이라는 구조 속에서 Mother(모성), Earth(자연), Care(돌봄)로 나뉜다.

Mother 섹션은 비너스 이미지 등 다산의 상징을 통해 생명 탄생과 모성 신화의 출발을 탐구한다. Earth 섹션에서는 석고봉대로 형상화된 여성 신체를 살피 작품으로 제시하며 억압받는 여성과 적취된 지구가 공유한 고통의 구조를 시각화한다. 이는 두 존재의 해방이 곧 자족 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임을 암시한다. Care 섹션은 회화, 조형물, 빛 등지, 나무 알 등의 상징을 활용해 상실과 재생을 은유하며, 돌봄을 공동체적 윤리와 연대의 실천으로 확장한다.

전시 개막일인 11일 오후 3시 30분 재단 1층 북카페 은새암에서는 ‘에코페미니즘의 시각으로 모성과 돌봄의 신화를 상상한다’라는 주제로 조성숙

작가와 김용근 평론가와 최송아 기획자가 참여하는 워크숍이 진행된다.

오미란 대표이사는 “이번 전시는 자연과 여성에게 부끄러운 온 돌봄의 무게를 다시 성찰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예술의 힘을 통해 시민과 함께 변화의 관점을 확장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성숙 작가는 전남대에서 서양화 전공, 미술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국내외 개인전 23회, 단체 전 300여 회에 참여했다. 또한 광주시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 동강대 및 길위의 인문학 강사 등으

로 활동하며 예술적 역량을 확장하고 있다.

광주여성전시관 허스토리(Herstory)는 성평등 문화 확산과 여성 경험의 가치 확장을 지향하는 열린 전시공간으로 지역 창작자와 시민의 소통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재단은 이번 전시를 통해 생태·젠더 감수성 기반의 공론을 시민과 함께 구현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www.gjwf.or.kr](http://www.gjwf.or.kr)) 또는 인스타그램(@gjwomenvfamily)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62-670-0534.

정체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 아동과 청소년들이 들려주는 ‘화음’

…꿈의 오케스트라’ 연주회 내일 남구예술회관

광주 남구 지역 아동과 청소년으로 구성된 오케스트라가 그간 쌓아온 역량을 관객들에게 선보인다.

9일 남구에 따르면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인 ‘남구 꿈의 오케스트라’가 11일 오후 7시 남구 문화예술회관 공연장에서 정기연주회를 개최한다.

남구는 지난 2013년 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실시한 공모사업에 선정된 뒤 올해를 포함해 13년 동안 자체 예산으로 지역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꿈의 오케스트라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공연은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선보이자는 뜻으로 기획된 꿈의 무대로, 가족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축제

의 장이 될 전망이다.

오케스트라 단원들은 이날 대규모 합주를 비롯해 분야별 양상별 협연 등 다채로운 무대를 관람객에게 선사한다.

특히 올해 정기연주회 주제가 ‘나의 빛나는 내일’을 만큼 올해 악기를 배우면서 협연 과정을 통해 쌓아 올린 자존감과 사회성을 예술로 승화해 표현한다.

또 단원들은 꿈의 무대에서 신세계 교향곡과 형가리 무곡, 아프리카 심포니 등 다양한 장르의 곡을 연주한다. 문의 062-570-5060. 윤용성 기자

